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미래부 일자리 창출 노력.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 제 혁 신

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미래창조과학부

보 도 자 료

http://www.motie.go.kr
http://www.msip.go.kr

2015년 11월 2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25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과장 김정화(044-203-4270), 정화정 사무관(4274)
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과장 이은영(02-2110-2930), 신일진 사무관(2935)

산업부-미래부,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본격 육성

-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('15.11), '16년부터 5년간 1,300억원 집중 투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와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) 공동으로 미래성장동력·산업엔진 프로젝트의 대표 분야인 「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.

○ 이 사업은 '16년부터 '20년까지 5년간 총 1,270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, 착용가능(이하 웨어러블)한 소재·부품, 플랫폼 기술개발에 1,110억 원을,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.

○ 웨어러블 디바이스 : 신체에 착용,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·출력·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로, 관련 소재·부품, 플랫폼, 서비스 등을 포함

* 생활·문화, 고위험 작업 환경, 제조·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

[웨어러블 기기의 발전방향]

1세대(~2010) 웨어러블 컴퓨터	2세대(2010~2020) 웨어러블 액세서리	3세대(2015~2025) 웨어러블 디바이스	4세대(2020~) Wearing IT-self
단독형 컴퓨팅 장치	착용형 소형기기	부착형/직물일체형	생체 이식형
• 휴대폰, PDA • 휴대용 게임기	• 스마트 안경/시계 • 목걸이, 팔찌 착용형 기기	• 직물/의류일체형 • 신체 부착형 센서 및 장치	• 이식형 생체 센서 • 특수임무 착용형 장치
 <휴대폰>	 <스마트 시계>	 <신체부착 디스플레이>	 <이식형 생체센서>

□ 현재 웨어러블 시장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이나,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, 글로벌 기업들도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는 추세를 볼 때, 빠르면 2016년 전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*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연평균 21.5% 성장하여, '24년 700억불로 성장 전망(IDTechEx, '14년)

○ 현재는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의료기기 및 스마트폰 등과 연계하여 문자, 이메일,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대다수라면,

- 앞으로는 국방, 소방 등 고위험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의복, 장구류 및 사물간 소통(커뮤니케이션)에 기반한 생활/문화 제품으로까지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시장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

○ 한편,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·전자·정보기술(IT)을 활용할 경우 단기간 내 시장 선점이 가능하고, 정보기술(IT)분야뿐 아니라 의료·국방·섬유 등 유관산업의 첨단화와 고도화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에 양 부처는 '14년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이후 '15년 4월에는 웨어러블 분야가 포함된 「산업엔진 프로젝트,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」을 수립하였으며, '15년 9월에는 「K-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」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산업육성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해 온 바 있다.

○ 한편 미국, 일본, 유럽 등 선진국들이 기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술개발 시기가 지연될 경우 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전자·정보·정보통신기술(ICT)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붕괴가 우려되며,

- 아울러, 정보기술(IT)산업의 특성상 초기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진입장벽 확대가 예상되고, 이에 추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1-25 11:03:22

□ 양 부처는 본 사업을 산업부와 미래부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, 기술개발뿐 아니라 인력양성, 기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김정화 과장(☎044-203-4270), 정화정 사무관(☎044-203-4274),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이은영 과장(☎02-2110-2930), 신일진 사무관(☎02-2110-29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